

우리문화

2011.05 Vol. 226 May

문화 비전 선언문

문화는 삶을 담은 그릇이다. 우리는 문화시대에 살면서 세계인과 한 가족으로 인류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할 책무를 지닌다.

지방문화원은 전통문화예술의 발굴과 육성, 문화예술교육 기회의 제공, 문화자원의 활용에 앞장서 온 지역문화발전의 주역임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이에 인간의 창의성 계발, 우리 문화의 세계화, 지방분권화에 빠른 문화적 책임 등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고 새로운 문화환경을 선도하는 문화원이 되기 위해 역할의 재정립을 가다듬어야 한다.

지방문화원은 도약을 다짐하는 뜻에서 '문화원의 날'을 제정하고 우리의 공고한 의지를 모아 다음과 같이 실천할 것을 선언한다.

- ▶ 지방문화원은 지역의 여러 문화 주체들의 힘을 모으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
- ▶ 지방문화원은 이 시대 주민들에게 필요한 지식정보와 다문화 시대의 매개자가 된다.
- ▶ 지방문화원은 문화 소외층이 없도록 함께 나누며 찾아가는 문화 활동을 펼친다.
- ▶ 지방문화원은 일회적·단기적인 사업을 지양하고 지속적·장기적인 활동을 추진한다.
- ▶ 지방문화원을 문화경영의 전문조직으로 적극 육성한다.

2011. 05 Vol. 226 May

Contents

등록번호 서울라 12184 | 발행 한국문화원연합회 | 주소 우)121-715 서울시 마포구 도화동 51-1 성우빌딩 1202호 | 홈페이지 www.kccf.or.kr | 전화 02)704-2311~3 | 팩스 02)704-2377 | 발행·편집인 최종수 | 편집위원 곽효찬(대산문화재단 사무국장), 김종(광주광역시 지회장), 박덕규(단국대 교수), 한춘섭(성남문화원장) | 편집팀장 문선희 | 편집 디자인 디자인 인크 02)332-7924 | 인쇄 태양 씨엔피 02)2268-2111

원고는 편집부와 연락 후 우편이나 e-mail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 게재된 기사 및 이미지는 한국문화원연합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책자는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아 제작하였습니다.

정가 3,000원

02 연합회 소식	회원기자단 발족
04 덩동 반갑습니다	전북 김제문화원
08 한국전통문화의 진수 <평택농악>	평택문화원
14 문화원 이야기	경북영천문화원
16 사회적기업 '태화루예술단'	울산중구문화원
22 문화원 book book	
26 문화원 돋보기	
30 연합회 레이더	우리 문화 소식
32	원장 동정

“지역의 소식은 우리가 책임집니다!”

우리문화 객원기자단 발족

전국 228개 지방문화원 지역문화소식을 발굴, 소개함으로써 현장의 생생함과 알찬 정보를 얻고 나누고자 연합회에서는 우리문화 객원기자단을 구성하고 그 활동에 들어갔다.

지역 특화 문화 프로그램 홍보로 문화원 발전을 도모하며, 문화원간 결속력을 다지는 데 기여할 것으로 본다.

객원기자단의 활동은 문화원의 단신 원고 송부를 포함, 협의 후 진행되는 기획 쪽지 등 다채로운 지역소식을 실을 예정이다.

지난 4월 1일자로 연합회장명의 위촉장을 수여하였으며 위촉장은 우편으로 발송될 예정이다. 활동은 올해 12월까지다. 문의 | 문선희 02)704-4311(직통)

1기 객원기자단 명단은 다음과 같다.

지역	문화원	이름	지역	문화원	이름
부산 대구 광주	동구	류종현	충북	인제지회	정무교
	동구팔공	강은진		청주	추연집
	지회	정인서		충주	방미선
인천 경기		이춘배	충남	보은	노광호
		김정희		논산	정경재
	남구학산	장경선		홍성	이준창
	안성	안순태	전북	예산	전용식
	안양	오미경		남원	박세진
강원	이천	이미경		경주	김현식
	성남	박미화	제주	영천	김장호
	평창	정은실		제주	이원석
	철원	김동훈			백종진

여기서 잠깐,

연합회와 우리문화 소개

한국문화원연합회는 1962년 전국의 78개 문화원이 연합하여 사단법인 한국문화원연합회로 출발, 지방문화원진흥법(1994.1.7 법률 제4718호)에 의거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비영리 법인으로 현재 지방조직으로 광역시도에 16곳의 지회와 전국 시군구에 227곳의 지방문화원을 회원으로 두고 있다. 우리 기관에서 발행하는 월간 <우리 문화>는 올해 225호(2011년 4월호)까지 발행되었으며 지방문화원, 문화전반의 인사, 단체, 정부 기간 등 폭넓게 배포되고 있다. 매월 말 경, 한 호 앞서 발행된다. (예: 4월 말 5월 호 발간)

- 책자명 | 우리문화
- 발간형태 | 월간
- 제작부수 | 2,000부
- 제작면수 | 36면 (표지포함)
- 발간일 | 매월 말 발행 (차월호)

객원기자단 활동 내용

▶ 정기 원고 | 문화 단신 (매월 의무 정기 발송)

문화원 단신 취재 및 원고 송부(사진 포함) 이 기사는 매월 '문화원 돋보기'에 단신으로 실린다. 해당 지역 소식에 한하며 1인당 3쪽지를 넘지 않도록 한다.(보낸 소식은 경우에 따라 편집될 수 있음)

▶ 비정기 원고

기타 (원고지 1매 당 5천원 기준, 사진은 추후 협의) 담당자와 협의 후 원고 방향과 게재방법 등을 정한 후 진행

▶ 원고마감

▶ 모든 원고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매월 15일 마감을 원칙으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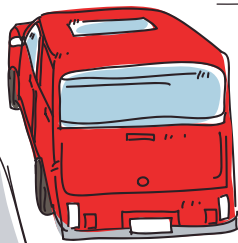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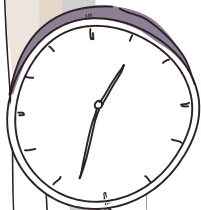
※ 비정기 원고에 관하여 원칙적으로 다음에 해당되는 원고에 한하며, 시나 수필 등 문학적인 글은 배제하도록 한다. 그 외 문화원이 주관하지 않지만 소개할만한 지역의 문화활동이 있다면 협의 후 진행토록 한다.

- 문화원 해외결연 및 해외 행사, 사업
- 원장 및 직원 우수사례 | 표창 및 각종 행사 운영
- 지방 우수축제 운영사례
- 뛰어난 회원 운영과 관리
- 이색적인 문화학교 운영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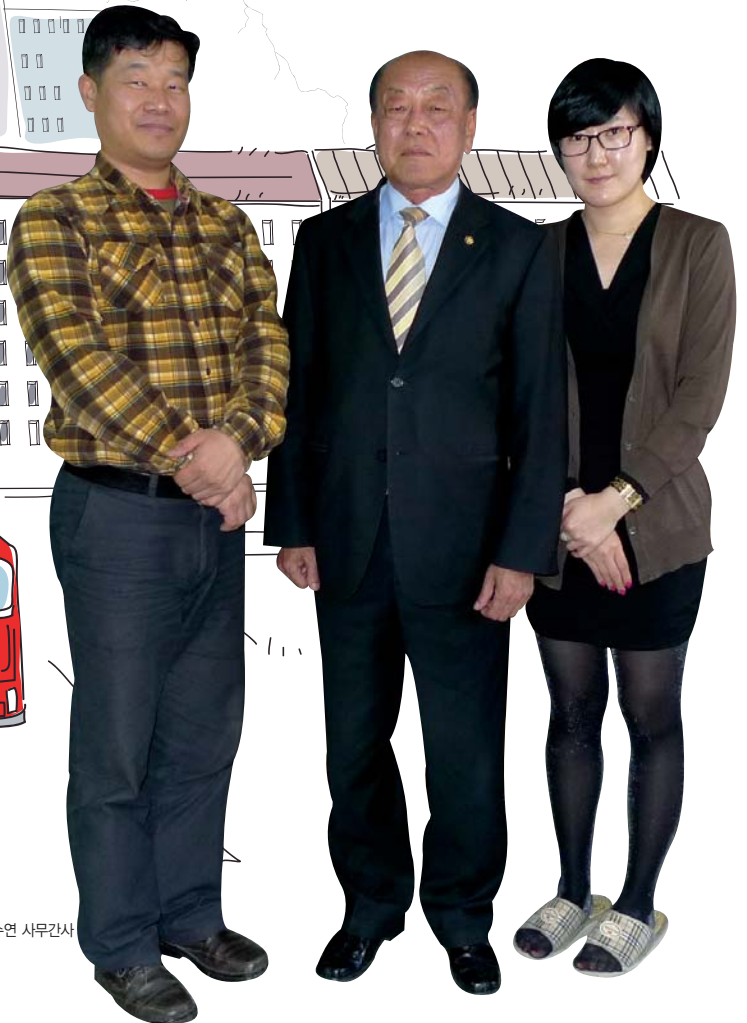
티동,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

김제문화원

반갑습니다



(좌부터)
김대호 사무국장, 정주현 원장, 김수연 사무간사





끝없이 너르고 너른 곳이다. 동으로 서로 한참을 달렸다.

삶은 데도 닿은 곳마다 지평선이다.

그래서 이곳을 땅과 하늘이 맞닿은 곳이라고들 한다.

매해 가을이면 이곳에서는 지평선축제가 열리기도 한다.

지평선이 보이는 드넓은 김제,

그 땅의 문화원은 어떤 모습일지 들여다 본다.

문화는 삶의 기초

간단한 이야기다. ‘문화는 삶의 기초’라고 말하는 정주현 원장이다. 김제가 고향인 정원장은 사업을 하면서도 평소 문화에 관심이 많아 문화원 회원으로 있었고, 차례 차례 이사, 부원장을 거쳐 원장이 되었다고 한다. 지역 사람인데다 문화원의 역사를 함께 하였으니 누구보다 문화원에 대한 애정도 남다르고 또 잘 알고 있다고.

김제 문화원은 올해로 45주년을 맞았다. 전라지역에서도 형님 문화원인 셈이다. 아무래도 이전부터 함께 걸어 온 시간이 있어 그것이 더욱 기쁘게 받아들여진다고. 정

원장은 부연한다. “모든 것의 밑면에 문화가 있다. 모든 조직은 그 저변에 문화가 자리하게 된다. 그런 마음이 있어서인지 언제나 애착을 가지고 임했다. 04년도에 취임하였지만 그 이전부터 체계적으로 협력을 한 편이다. 이제 만 7년인데 눈 깜짝할 새 시간을 보냈다.”

애착이 큰 만큼 세월도 빨랐다는 정원장이다. 손길 안 닿은 데 없이 문화원에 대한 애정이 크다. 또한 문화에 대한 주관도 확고하므로 문화를 품은 이곳, 문화원도 더욱 그러했을 터다.

김제의 맥을 잇는 문화원 교육

“특히 김제는 예로부터 애향의 고장으로 문인, 무객이 많았다. 근대에 김제를 빛낸 얼굴들이 많다. 서예 하면 김제 아닌가. 일제 말기 실학자로 석정 이정직 선생 같은 분이 있다. 우리는 그런 분들의 맥을 이어가고 있다. 또 이어가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 생각된다. 우리문화원에서 특히 주력하는 것은 교육사업이다. 문화교실은 크게 네 개 정도다. 첫째로 한문. 한문교실은 인성교육을 주축으로 하고자 한다. 그래서 강의하는 분에게도 그렇게 해 달라 말씀드린다. 주로 천자문, 소학, 대학, 맹자를 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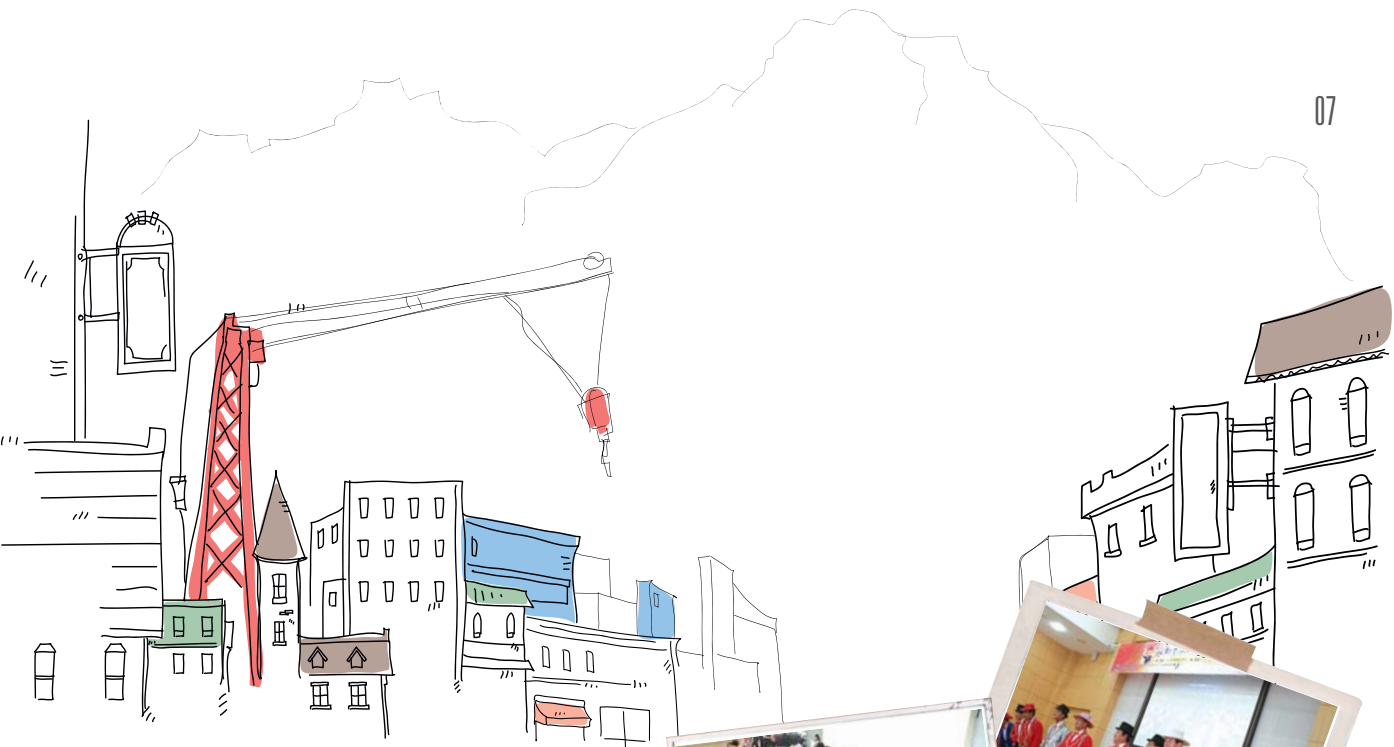
룬다. 그리고 서예가 그 둘째. 다음이 한국화, 동양화라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어 교육이다. 황해권 시대를 맞이하여 중국과는 앞으로 더 빈번한 교류가 생기는 것이 자명한 일인데 이때에 중국어 교육을 하는 것이 적절하다 판단되어 개설하게 되었다.”

지역마다 곳곳마다 그 특성이 다를 수밖에 없는 것이 문화원이다. 처소마다 그 지역에 맞게 문화원 운영하는 것이 보통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다. 그 지역을 알고 나아가 지역의 요구에 귀 기울여야 하기 때문이다. 15년 동안 문화강좌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김제문화원은 아마추어 경지를 넘어서서 각종 서예전시에 초대받는 서예 전시 초대작가가 4명에 이른다. 이를 볼 때 김제문화원은 호남 3걸(湖南 3傑)의 역사문화예술의 대동맥을 이어가는 역할을 성실히 수행해가고 있다.

문화원의 이모저모

문화강좌가 지속적으로 열리고 있을 뿐 아니라 1년내내 다채로운 행사로 김제문화원은 정신이 없을 지경이다. 덧붙여 문화강좌로 우리고장 문화해설사도 양성하고





있다. 지역사회교육으로는 문화원 회원을 대상으로 한 유적지 답사, 이·통장 및 사회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내 고장 역사문화재탐방, 이사 및 대의원의 유적지 문화탐방까지다. 지역문화개발활동으로 초·중·고교생 백일장 대회, 세계 청소년 농촌풍경 그림그리기대회, 초·중·고교생 및 일반인 서예실기대회, 향토사연구조사 등이 연중 진행된다. 향토사료 수집보존 작업으로 김제의 문화재 중판, 성산문화(제23호) 발행과 벽골제 제사까지 눈코뜰새 없다. 또한 문화재청의 사업으로 생생(生生)사업, '짚용의 울부짚음으로 벽골제를 깨우다'와 연합회 기금사업인 어르신문화학교 사업도 함께 진행하고 있다. 어디 이뿐이라, 작년에는 다큐멘터리 '새만금 징계 맹게 포구를 가다' 촬영으로 언론의 플래시 사례를 받기도 했다. 새만금징계맹게 포구(심포항)에서 사라져가는 포구의 모습을 직접 어르신들이 캠코더로 찍은 것이다.

김제의 문화는 문화원에서

“김제가 지금은 어렵다. 농경사회였으니 드넓은 논이 고장인 김제는 아무리 어려워도 풍족한 편이었다. 요새



야 아무리 어렵다고는 하나 예전만큼 어려울까, 그런 생각을 해본다. 다만 우리 문화원에서 할 일은 경제적인 부분에서 수익창출도 함께 되면 좋겠지만 김제의 문화가 활짝 꽃피우는 데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면 하는 바람이다.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은 결국 문화의 삶이기 때문이다.” 문화원의 할 일은 그 어느 것보다 지역의 문화라고 힘주어 말하는 정원장이다. 그의 확고함 속에서, 또 문화원의 열심 속에서 피어나고 싹 틀 문화원의 문화나무는 얼마나 울창하련가. 그 기대에, 다음 봄 즈음에는 김제를 다시 돌아보겠지, 한다. 김제의 문화, 그곳의 문화원이 있다. 문화원의 행보를 다만 따를 일이다.

*호남3걸

전북 김제 출생

해학(海鶴) 이기(李沂, 1848-1909), 석정(石亭) 이정직(李定稷, 1841-1911)

전남 광양 출생

매천(梅泉) 황현(黃玹, 1855-1910)

한국 전통문화의 진수 평택농악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 추진



평택농악의 역사

농악은 우리 선조들의 감정과 직감이 낳은 문화유산이다. 우리민족의 심성이 가장 잘 표현된 민중의 음악이요 춤인 것이다. 이러한 농악의 기원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다만 농경시대 이전으로 거슬러 올라가 수렵시대에 짐승몰이를 위한 타악기 사용이 그 시원이라는 설이 있다. 그리고 하늘에 제사를 지낼 때 쓰던 악기에서 비롯됐다는 설로 모아진다.

그러한 행위에서 발전해 마을 농악대가 형성되고 지신밟기와 두레 농악으로 발전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러한 농악이 지역에 따라 명칭도 조금씩 달라지고 내용과 형식의 차이를 보이기도 한다. 우리나라의 농악은 크게 평택농악이 속한 웃다리농악과 지리산을 중심으로 한 전라도 산악지역의 호남좌도농악, 전라도 평야지역의 호남우도농악, 경상도 지방의 영남농악, 태백산맥 너머의 영동농악 등으로 나누어진다. 각 지역에는 그 지역의 대표성을 인정받은 농악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로 지정돼 현재 5개의 농악이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이다.



〈대한민국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대 농악 분포도〉

특히 웃다리농악은 경기도를 포함하여 서울, 인천 수도권과 대전·충청지방, 강원도 영서지방에 전승되는 등 수도권을 중심으로 충청, 강원지역까지 광범위하게 포괄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농악으로 1985년 12월 1일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 11-나호로 지정되었다. 흔히 경기평야로 불리는 농경지는 남부지방의 진위천과 안성천 유역의 드넓은 평택평야와 경기도 북서부 한강 하류에 펼쳐진 김포평야를 말한다.

지금의 김포평야는 신도시 등 급격한 도시개발로 인해 평야라는 명칭을 사용하기가 무색하게 됐으며, 평택지역도 각종 개발 사업으로 인해 농경지가 줄어들긴 했지만 백리 평택평야가 그나마 경기평야의 이름값을 하고 있는 셈이다.

경기도 평택시는 소셋들(소사평)이라는 넓은 들을 끼고 있어 주곡인 쌀을 비롯한 농산물이 풍요했고 이러한 산물(產物)의 풍요는 농민문화를 일으키어 평택지방의 농악을 이루게 되었다. 일찍부터 평택을 중심한 소셋들을 건너 여러 고장을 토대로 사당패(寺堂牌)들의 중심지가 되었다. 조선 후기에는 전국의 사당패 중에서도 평택 진위지방을 중심으로 유세기 씨가 주도하는 진위사당패가 전국적인 명성을 얻었으며 이로 인해 농악도 발달하였다.

사당패는 평택의 소사들, 오성들, 진위 장안들, 성환, 둔포들, 멀리

는 예산, 삽교, 당진, 합덕들에 이르기 까지 놀이판을 펼쳤다. 하지만 남사당은 일제강점기 일본인의 등쌀에 그 자취를 감추게 되었고, 명맥을 유지한 것이 평택걸립패였다. 걸립패는 교량, 학교, 관공서 등을 건립하는데 유용하게 활용되었고, 또한 개인적으로는 생계 유지의 수단이기도 했다.

평택농악은 이때부터 두레풍물과 걸립풍물굿을 가장 잘 계승한 웃다리 지역을 대표할만한 풍물로 여겨지게 된 것이다. 두레농악에서 하던 지신밟기, 두레굿과 더불어 난장굿, 절걸립, 촌걸립 등 걸립패에서 하던 전문연희패적 요소가 함께 나타나는 형태이다. 이는 최은창 선생이 전문 연희패에서 활동했고 초기 구성원들이 서울 및 경기남부, 천안, 공주 지역에 흩어진 명인들로 구성되어 전문연희패적 성격이 더 강하기 때문이다.

즉, 평택농악은 평궁리 마을의 두레농악에 기원을 두고 있지만 평택의 두레농악을 대표한다기보다는 경기, 충청지방 전문연희패의 가락과 판제를 계승한 웃다리 농악이라고 할 수 있다. 평택, 안성, 화성 등지의 농악은 이른바 평택농악의 전형적인 특성을 갖고 있으며 이러한 특성을 갖는 농악은 경기도, 강원도 서부, 충청도 등 ‘웃다리’라는 명칭으로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경기도 평택시 팽성읍(彭城邑) 평궁리(平宮里)는 평택시내에서 남서쪽으로 2km쯤 떨어져 있는 농촌마을이며 행정구역은 팽성읍에 소속되어 있다. 이 마을에서는 옛부터 지신(地神)밟기, 두레 굿 등 여러 농악을 세게 쳤다.

‘평택농악(平澤農樂)’이라는 명칭이 최초로 사용된 것은 한국전쟁 직후 이승만 정부 시절 대통령 생일을 기념해 열리는 전국농악경연 대회에서였다. 평택농악의 명인 최은창(崔殷昌) 선생은 당시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패를 구성해 ‘평택농악’이라는 이름으로 대회에 나갔다. 지금의 광화문인 중앙청 앞에서 열린 이 대회에서 평택농악은 1958년과 1959년 2회 연속 우승을 차지했다.

이는 평택농악의 이름을 최초로 세상에 알린 계기가 된 것이다. 평택농악의 계보를 이야기 하자면 유세기 선생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유세기 선생은 1984년 당시 91세의 나이로 전국 5대 놀이패인 진위패를 육성한 가문으로 농악, 시조 등에 조예가 깊으며, 저서로는 〈원형 시조 창법〉이 있고, 돌아가실 때까지 평택 진위면에 거주하고 있었다.

특히 진위군 봉남리 유세기의 부친은 당시 진위현 관청에 딸린 관리인 아전이면서 술을 만들어 파는 술전을 대대적으로 경영하는데 전국에서 농악에 소질 있는 자들을 증입원으로 등용하여 평소 농악을 연마시켜서



조선 고종 4년(1867년) 흥선대원군에 의해 경복궁이 중건되자 경복궁 건축 위안공연에서 대원군으로부터 '진위군대도방관농지기'라는 농기(都大房旗)와 3색의 어깨띠를 하사받고, 당시 상쇠 김덕일에게 '오위장(五衛將)'이란 벼슬을 내려준 사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진위농악이 경기농악을 대표할만한 실력이 있었고, 전국에서도 유명한 존재였던 것이다.

일제강점기 초에 유세기가 안성군 경찰서에 경부로 재직 중 남사당패 놀이를 전국에서 금지하고 있었는데 유일하게 안성군 경찰서만이 남사당패놀이를 허가해주었다.

이 같은 이유로 전국의 남사당패들은 안성지역에 집중 이주하게 되었던 것이다. 이 때문에 평택과 안성은 청룡사를 본거지로 하여 남사당패의 중심지가 되었던 것이다. 그 당시 남사당패의 농악이 발달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평택, 안성, 화성 등지의 농악은 이른바 경기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농악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서부 등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왔다. 이후 평택농악은 절걸립으로 근근이 유지되어오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해체된다.

이때부터는 최은창 선생은 고향 평공리에서 농사일을 하는 한편 간간히 '민속극회 남사당' 활동을 해왔다. 평택농악이 현재와 같은 편제를 갖춘 것은 1980년대부터다.

지금은 작고한 상쇠 최은창(崔殷昌) 선생과 수법고 이돌천(李斗川) 선생 등 명인들이 평택을 비롯한 인근 지역에 살면서 농악을 쳤으며, 1980년에는 최은창 선생이 중심이 되어 평택, 안성, 천안 등지에서 불려온 전문연희패 출신들과 평택군내에서 이름이 나 있던 사람, 그리고 평공리 마을사람들로 편성된 평택농악팀을 만들어 그해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경기도 대표로 참가해 공연했으나 공연의 수준이 너무 높다하여 예정에도 없던 상을 급조해 특별상을 줬으며, 이에 단원들이 반발하자 이를 달래기 위해 제주도지사가 직접 나서 제주도 일주 관광을 시켜주는 것으로 사태를 일단락 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1985년 12월 최은창, 이돌천 선생이 평택농악 예능보유자가 됐으며, 이듬해인 1986년 12월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 평택농악의 보유단체로 평택농악보존회가 지정받게 된다. 평택농악이 명실 공히 전통적인 웃다리농악의 가락과 판제를 이어온 것으로 인정을 받게 된 것이다.

평택농악의 명인들

지금의 평택농악이 있기까지 큰 업적인 남긴 최은창(崔殷昌) 선생은 1914년 4월 18일 평택군 팽성면 원정리에서 대대로 농사를 짓던 부친 최상순 씨의 5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나 출생 직후 평택농악의 발원지라 할 수 있는 평공리로 이주해 살아왔다.

최은창 선생은 마을 등기래패(두레패) 상쇠에게서 팽과리를 배워 16세 때 두레패의 팽과리를 쳤고, 26세 때에는 이원보 상쇠에게서 장구와 팽과리를 배웠으며, 이원보 농악단의 끝쇠를 쳤다. 성인이 되면서 마을단위를 벗어나 촌걸립을 하는 전문연희패에 가담하게 되고, 절걸립패에도 몸을 담았다가 나중에는 독립하여 직접 절걸립 행동을 꾸려서 활동을 하였다. 그러면서 장고잡이로 비나리꾼으로 쇠꾼으로 이름을 날리게 되었다.

그러나 생업을 버린 것은 아니어서, 1년 중 농사철에는 평공리에 들어와 농사를 지으며 살다가 가을걷이가 끝난 뒤에는 걸립패로 나서는 생활을 반복했다. 40세 때에는 남운룡악단(南雲龍樂團)에 들어가 장구를 치다가 부쇠를 쳤다. 48세 때에는 절걸립패 상쇠로 나서서 북한산 태고사, 인천 연화사 등 수 많은 절의 중수에 절걸립패를 이끌고 시주를 걸었다.

이후 민속극회 남사당에서 활동하던 최은창 선생은 1980년 평택군의 요청으로 농악단을 꾸려 경기농악이라는 이름으로 제21회 전국민속예술경연대회에 출전하게 되며, 이를 계기로 1985년 평택농악 상쇠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제11-나호 평택농악을 이끌게 되며, 20여년 가까이 평택농악을 체계화시키는 데 공헌해오다 2002년 작고했다.

최은창 선생과 함께 평택농악을 이끌어 온 이돌천(李斗川) 선생은 장호원에서 태어나 10세때 천안으로 이주해 16세 때 마을 상쇠에게서 쇠를 배워 쳤고, 17세 때에는 충북 출신의 박지삼에게서 법고를 배웠다. 18세 때에는 남운룡(南雲龍) 밑에서 법고를 배워 남운룡농악단의 법고수로 있었다. 그 뒤 평택농악과 천안농악에서 적을 두었으며, 1980년 평택농악을 공식 결성할 때 합류해 1985년 법고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아 활동해오다 1994년 작고했다.

현재 평택농악보존회장을 맡고 있는 김용래(金容來) 선생은 천안에서 태어나 13살 때 용곡마을 두레패에서 무동으로 농악에 입문해 16세부터 대전 송순갑 행종과 안성 남운형 행종에서 활동하다 18세 때 상모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스승이 바로 평택농악의 명인 이돌천 선생이다. 또 천안에서 난장굿을 할 때는 최은창 선생의 팽과리 장





그 당시 남사당패의 농악이 발달하였으니
이로 인하여 평택, 안성, 화성 등지의
농악은 이른바 경기농악의 전형적인 특징을
갖게 되었으며,
이러한 농악은 경기도, 충청도, 강원도 서부 등
매우 넓은 지역에 분포되어 왔다.
이후 평택농악은
절절립으로 근근이 유지되어오다
1970년대 새마을운동이 시작되면서
해체된다.

단에 맞추어 상모를 돌렸으며, '남사당'에 가입해 활동하다 1982년 평택농악에 들어왔으며, 2008년 평택농악 법고 예능보유자로 지정받으면서 팽성읍 평궁리 평택농악전수회관 인근으로 거주지를 옮겨와 살고 있다.

이민조(李敏祚) 선생은 평택시 포승읍 방림리에서 낳아서 지금도 그곳에서 산다. 16세 때 마을에서 법고를 배웠고 18세 때에는 이원보에게서 팽과리를 배웠다. 1980년대 평택농악단의 일원으로 활동하다 탈퇴하여 포승지역 농악대의 상쇠로 활동해오고 있다. 이밖에도 평택농악의 초창기 단원으로는 방오봉, 김육동, 유준, 황흥엽, 이성호, 이경일 선생 등이 있으며, 안성남사당보존회 회장인 김기복 선생도 오랜 기간 평택농악단에서 활동했다.

평택농악의 특성

198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농악을 연주하는 사람들은 우두머리인 상쇠의 필요에 의해서 인근 시·군에서 농악 한 자락 한다는 사람들이 모여 급조한 농악팀을 만들어 두레곳이나 걸립곳을 펼치곤 했다. 때문에 농악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펼려간다"는 말이 전해 내려와 지금까지도 사용되고 있으며, 평택농악을 거쳐 간 사람들이 많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온다.

평택농악의 유래를 통해 알 수 있듯이 평택지방은 넓은 소사벌을 배경으로 자연히 농업이 발달하였고, 두레에 의한 마을단위의 풍물도 발달하였다. 한편, 웃다리 지역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풍물패가 형성되어 나중에는 풍물 자체를 업으로 삼는 직업적인 유랑 연희패



로 변하게 되었다. 이런 배경에서 형성된 평택농악은 따라서 두 가지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하나는 최은창 선생이 평생 거주해 온 평궁리, 넓게 잡아도 평택지역에서 전승되어 오던 마을 두레패 성격의 농악이요, 또 하나는 최은창 선생이 성인이 된 이후 넓은 지역을 유랑하면서 활동하던 전문연희패 성격의 농악이다. 평택농악이 두레패의 성격에만 머물렀다면 웃다리 지역을 포괄하는 농악으로서의 대표성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요, 전문연희패의 성격만 가지고 있었다면 농악의 뿌리라고 할 수 있는 두레농악의 대동적 신명을 가지지 못했을 것이다.

이렇게 평택농악은 그 형성과정상 두레패의 전통과 웃다리 지역 전체를 넘나들던 전문연희패의 전통을 함께 지니고 있는 복합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평택농악은 마을 두레패의 성격보다는 전문 연희패의 성격이 강하다.

이는 평택농악의 예능보유자였던 최은창 선생이 주로 전문 연희패에서 활동했다는 점과 평택농악의 구성방식 그리고 구성원의 주요 인맥에서도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이후 평택농악보존회는 정부와 평택군의 지원으로 팽성읍 평궁리 242-1번지에 평택농악전수회관을 건립해 꾸준한 강습활동과 공연활동을 통해 평택농악의 전승보존과 전수활동에 힘써오고 있으며,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되면서 최근에는 행정적 지원이 확대되어 평택농악의 전통 보전과 발전적 계승을 위한 전승활동을 안정적으로 시행해 오고 있다.

웃다리 평택농악은 가락의 종류가 많지 않은 반면 변주가 다양하다. 또한 가락이 빠르고 힘이 있으며 맺고 끊음이 분명한 것을 특징으로 삼는다. 독특한 가락으로는 칠채와 잣은삼채라 불리는 짹짹이가 있다. 판굿은 굿패들이 여러 가지 놀이와 진풀이를 순서대로 짜서 갖은 기예를 보여주기 위하여 벌이는 풍물놀이이다.

웃다리 판굿은 보통 45명 정도로 이루어지는데, 농기와 영기를 앞세우고 호적수가 따르며 그 뒤로 쇠, 징, 장고, 북, 법고, 무동 등이 이어진다. 평택농악의 판굿은 진풀이가 다양하고 화려하며 생동감이 넘친다. 단산벌림 대형과 무동놀이가 가장 큰 특징인데 특히 무동놀이에서 보여주는 던질사위, 앞뒤곤두, 만경창파뚫대사위, 동거리와 곡마단은 관객들의 탄성을 자아내게 하는 평택농악만의 자랑거리이다.

지금은 그 명맥이 끊어졌지만 우리나라 여느 농악단에서 할 수 없는 평택농악만의 전설이 있다. 무동 네 명이 한 줄로 올라서서 4층 탑을 쌓는 '희초리 사무동'과 곡마단에 앞뒤로 두 명의 무동이 더 올라서는 '칠무동'이 바로 그것이다. 기능 면에서는 어떤 농악도 따라잡을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이라 할 수 있다.

평택농악의 세계화

평택농악은 최근 들어 체계적인 전수활동으로 단원들의 기량이 급속도로 향상되고 있다. 이는 2004년 발족한 평택농악발전연구회(회장 오용원 평택문화원장)의 연구 활동과 이에 대한 성과가 하나 둘

이와 함께 평택농악은

매년 100여회가 넘는 국내 공연과 함께

4~5차례 이상의 해외 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다.

많은 해외 초청공연을 통해

평택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평택농악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다.

표출되면서 부터이다. 문화원을 중심으로 행정, 의회, 민간 등에서 9명이 참여해 '평택농악의 전통 보존 및 발전적 계승 방안'에 대한 연구를 2년여에 걸쳐 지속해왔으며, 연구 결과를 평택농악 발전을 위해 하나 하나 적용한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2005년 대한민국 최초로 '평택시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원조례'를 제정한 것을 시작으로 평택농악의 효율적인 홍보활동을 위한 'CIP 제정', 평택농악을 비롯한 국가지정 중요무형문화재 5대 농악이 한자리에 모여 구성된 판국을 벌이는 '대한민국무형문화재 5대 농악 축제' 개최, 평택농악 단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생계를 걱정하지 않고 전수활동에 전력할 수 있도록 2006년도부터 시행한 '상임단원 제도', 2008년 평택호에 착공해 2011년 준공을 앞두고 있는 평택농악마을 등은 평택농악이 장기적으로 평택을 대표하는 고유문화로 발돋움하고, 제도적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는 호기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함께 평택농악은 매년 100여회가 넘는 국내 공연과 함께 4~5차례 이상의 해외 초청공연을 펼치고 있다. 대만 세계타악페스티벌, 터키 체리축제, 중국 상해아트페스티벌, 캄보디아에서 열린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일본 마쓰리축제, 독일 카스발데아쿨투어, 호주 시드니 선상공연 등 많은 해외 초청공연을 통해 평택은 물론 한국의 전통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홍보대사 역할을 충실히 해내고 있다. 이를 계기로 평택농악은 2012년 유네스코 세계무형문화유산 등재를 정부와 함께 추진해나가고 있다.

평택은 오래전부터 국보급 예인들을 많이 배출했던 곳이다. 평택농악을 만들어낸 산 증인 최은창 선생과 이돌천 선생은 평택농악과 함께 농고동락을 하다 생을 마감했으며, 현재는 김용래 선생이 그 명맥을 이어가고 있다.

그 이전에는 평택군 송탄면 출신의 호적 잭이 송창선 선생이 남사당 꼭두각시로 활동했으며, 포승면 출신의 지역희 선생은 아쟁의 명인으로 우리나라 국악을 체계화 시킨 국악계의 선각자로 불린다. 출생지는 아니지만 서울에서 활동하다 말년에 10여년간 평택에 거주하며 판소리에 열중하다 작고한 명창 이동백 선생은 동편제의 거목으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 다섯 분이 평택에 적을 둔 인간문화재들이니 평택은 가히 예향의 고장이라 서슴지 않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평택은 질박한 서민의 정서를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인을 꺼안을 줄 알고, 그들이 터를 잡아 생활하도록 배려할 줄 아는 문화적 토양을 갖고 있는 고장이다.

이러한 토양은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며, 평택농악과 같은 우리의 전통문화가 뿌리내리고 번성하는데 자양분이 되기에 충분할 것이다.

박성복 평택문화원 사무국장



마상재, 전별연 대신 풍물, 하모니카, 민요, 난타공연

제3차 21세기 조선통신사 한·일 우정걷기 영천 방문 행사



군위군 의흥면사무소를 출발해 화본, 부산리를 거친 제3차 21세기 조선통신사 서울·동경 한·일 우정걷기팀이 14일 오후 2시 신녕면사무소에 도착했다.

잠시 휴식을 취하면서 장수(長水), 청통(淸通), 아화(阿火), 모량(毛良), 사리(沙里), 우곡(牛谷), 경역(鏡驛), 조역(朝亦), 인비(仁庇), 의곡(義谷), 압량(押梁), 부평(副平), 청경(淸景), 구어(仇於), 화양(華陽)역을 관할하던 장수도 찰방(長水道察訪)을 생각했다. 다시 길을 나서 화산면사무소에 도착하니 영천시한일문화교류회(회장 손태국) 회원들과 영남외국어대 일어과(학과장 송의익) 학생들이 마중을 나왔다. 학생들의 합류로 일행이 많이 늘어난 가운데 정해진 일정에 맞추기 위해 발걸음을 재촉했다. 영천시내로 접어들어 영천문화원 풍물단(회장 최홍철)이 흥겨운 가락으로 반



기며 길을 안내해 옛 동헌이 있었던 영천시보건소 마당을 한 바퀴 돌아 6시경 당시 조선통신사 일행을 위해 전별연(餞別宴)과 마상재(馬上才, 김인겸의 '일동장유가'에 기록이 남아 있다.)가 열렸던 조양각에 도착했다.

풍물단의 신나는 공연에 어깨를 들썩였고 기념촬영을 한 후 문화원 강당으로 올라갔다. 영천문화원 이원석 사무국장과 영천시한일문화교류회원인 지에씨의 사회로 하모니카와 민요, 난타공연을 관람했다. 참가자 소개에 이어 조진호 자문위원의 통역으로 성영관 영천문화원장의 환영사와 일본건기협회 엔도 야스오 단장의 답사 후 기념품 전달식을 가졌다. 영천에서 준비한 스타 영천 열쇠고리와 휴대폰 전자파 차단기, 타월, 영천안내 팸플릿, 김덕주 명인이 제작한 안마기, 영천관련 책자 등 푸짐한 선물을 했고 우정결기팀에서도 기념페넌트와 티셔츠를 우정의 표시로 전달했다. 지난 1일 경북궁을 출발해 서울-용인-충주-문경-예천-안동-의성-군위-영천-경주-울산-부산(동래)까지 총 22일간 양국의 걷기 동호회 및 관계자 40여 명이 참여해 총 520km의 조선통신사 옛길을 답사하게 된다. 조선통신사는 일본을 통일한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가 조선 침략에 대한 사죄의 뜻을 표명하면서 국교 재개와 사절단 파견을 요청한 것이 계기가 돼 조선통신사의 일본행은 한양(서울)에서 에도(도쿄)까지 육로와 배길을 합해 왕복 1만 1000리를 오가는 10개월간 대장정이었다.

통신사 파견은 1429년(세종 11) 정사 박서생을 시작으로 1811

년까지 200여 년 동안 12차례에 걸쳐 이어졌고 규모는 매년 300~500명이었다. 이번 행사의 정사는 선상규 한국체육진흥회장이, 부사는 김태호 광주대 교수, 종사관은 고양문 울산대 교수가 맡았다. 행사에 참가한 나카무라 스스무씨는 "옛날 조선통신사가 걸었던 옛길을 한일 양국 민간인들이 같이 걸으면서 선린우호관계와 평화를 느낄수 있는 계기가 마련돼 기쁘다"면서 "환대해준 관계자와 영천시민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8월 15일(기해) 맑음. 신령에 닿았다. 새벽에 세 사신 및 일행들과 함께 관복을 갖추고 망쥬례를 행하였다. 저녁에 신령현에 이르니 주수 서희수와 군위현감 임용, 성현찰방 임희우, 지례현감 송부연이 보러 왔다.(중략) 이 날은 90리를 갔다.

16일(경자) 맑음. 영천에 닿았다. 도백 감상철이 보러오고, 이어 전례인 전별연을 조양각 위에 벌였다. 내가 비록 복제(상복 차림) 중이나 가지 않을 수 없었다. 때문에 풍악을 울리고 상을 받을 때엔 방안으로 피해 들어갔다. 반나절 동안 순상(도백)과 세 사신들은 이야기를 하였다. 이는 영남의 성대한 모임이므로 구경하는 사람이 거의 만 명으로 헤아려졌다.

1763년(영조 39) 조선통신사 정사를 맡은 조엄의 '해사일기'에 적힌 내용 중 일부분으로 당시 조선통신사 행렬의 모습과 영천에서의 전별연 장면 및 그 규모를 가히 짐작해볼 수 있다.

이원석 영천문화원 사무국장, 우리문화 객원기자

사회적 기업

‘태화루 예술단’을 소개합니다



한눈에 보는 태화루 예술단

- ▶ 설립일 | 2009년 4월 18일
- ▶ 사회적 기업 인증 | 2010년 12월 20일 / 노동부 2010-178호
- ▶ 참여자 | 관리직 3명 / 문화유산해설사 1명 / 무용 4명 /
소리1명 / 타악 6명 총 15명 운영
- ▶ 설립취지 | 문화원 재정 수익 확보와 부족한 문화원 인력 확충을 위한
문화예술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으로 노동부 공모 사업으로 진행
- ▶ 주요활동 | 취약계층 찾아가는 문화공연
문화원 자체 행사 진행, 지역 축제 및 행사 축하공연
문화유산해설사 운영
- ▶ 기금 조성 | 노동부 인건비 지원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태화루 예술단'

전국 문화원에 종사하시는 실무자들은 문화원의 재정의 열악함과 인력의 부족함에 대해서는 한 목소리로 어려움을 토로하실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 울산중구문화원도 그 어려움을 타개해보고자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운 좋게 사업이 선정이 되어 실행하게 되었다. 이 사업도 벌써 올해로 3년차를 맞게 되었으며 또한 2010년 12월 20일 노동부 178호, 사회적 기업으로 인정을 받게 되었다.

순탄치만 않은 사업

하지만 국가에 재정적 지원을 받는 만큼 국비 지원 사업 모든 사업이 그렇듯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 또한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노동부의 감사. 일정한 수익 창출. 사업 성격에 맞는 활동. 참여자 관리, 그리고 이에 따르는 행정업무...

매년 인건비 지원 비율 대비 수익이 창출이 되어야만 다음년도에 참여할 수 있는 제 심사에 참가를 할 수 있고 성과를 따져서 배정인원이 결정되어지기 때문에 수익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였다. (참고로, 2009년 처음 시작하였을 때에는 20명으로 시작을 하였다가 2010년에는 14명으로 인원이 6명이 감원이 되었다.)

수익창출에 대한 노력!!

축제 및 행사에 태화루 예술단을 홍보하고 알리는 것이 가장 급선무였고, 그러다 보니 본의 아니게 다른 문화단체와 경쟁을 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 시기와 질투를 한 몸에 받기도 하였다.

그래서 지역 문화예술단체가 하기 힘든 작품. 새로운 모델의 창작 작품을 개발하기 시작하였다. 그 첫 성과로 2010년 세계웅기문화엑스포 주제공연을 25일 동안 1일 2회 공연으로 '시간으로 떠나는 웅기여행'의 주제로 작품을 만들어 공연하게 되었다. 또한, 가(歌)무(舞)악(樂)이 어우러지는 작품을 만들어 축제 오프닝공연으로 초청받고 진행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지역 축제의 주제공연에 대한 창작의뢰가 들어와 현재 고래축제, 처용문화제 등 울산의 대표축제에 초청을 받아 준비하고 있다.

문화원 홍보!!

수익금 일부를 지역의 소외계층 및 취약계층에 찾아가는 문화공연을 기획하여 지역 곳곳에 찾아가 문화원을 알리면서 전통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 있으며, 문화원 행사 때에도 전통문화공연의 다양하고 수준 높은 공연을 선보이면서 지역민들에게 문화향수기회를 제공하는 자리도 만들뿐 아니라, 부족한 일손을 돕는 자원봉사자로서도 활동을 하고 있어 문화원 행사가 풍성하게 진행하게 되고 있다.

지방문화원 공연예술분야 사회적 기업 1호!! - 스타마케팅!!

함께 고민하고 함께 풀어 나갈 때 태화루 예술단은 사회적 기업으로 자리 매김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지방문화원에서 시작한 태화루 예술단이 한국문화원연합회에서 스타마케팅을 활용으로 전국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무대의 폭을 넓힘으로서 문화원 홍보 예술단으로 활동 할 수 있는 계기 마련과 사회적 기업을 개발하는 성공 사례로 알리면서 문화원을 대 · 내외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제안해 본다. 울산중구문화원 소속의 사회적 기업 태화루 예술단이 아닌 지방문화원이 발굴한 사회적 기업 태화루 예술단으로!!

김성연 울산중구문화원 사무국장



연도별로 보는 태화루 예술단 활동내용

2009. 04. 21	사회적일자리 창출 사업단 [태화루 예술단] 사업 개시	2010. 09. 10	무용예술제 선생님 밴드(북구청 광장)
2009. 05. 09	울산 쇄부리 축제 공연(북구문화예술회관)	2010. 09. 24	한가위 어울림(태화동 생태공원)
2009. 05. 14	제 15회 고래축제 퍼레이드 참가(시청-)	2010. 09. 29	한국방송통신대학 24회 합월 축제(태화강 둔치 구 야구장)
2009. 05. 15	병영산전샘물축제(병영 산전)	2010. 09. 30 ~ 10. 24	울산세계웅기문화엑스포(울산 울주군 외고산 웅기마을)
2009. 05. 23	서덕출 봄편지백일장 및 사생대회 축하공연(학성공원)	2010. 10. 8	포항 자선바자회(코모도호텔 야외무대)
2009. 06. 04	울산남구문화원 단오맞이 행사 공연	2010. 10. 9	작은 음악회(웅촌면사무소 옆 운동장)
2009. 06. 05	중구문화원 단오맞이 어울마당(중구 태화강 대숲공원)	2010. 10. 15	22회 울산산업문화축제(태화강 대숲공원)
2009. 06. 13	한국문화원연합회 울산지회 풍물경연대회 공연(남구문화원)	2010. 10. 19	울산 문화 어울림(웅기엑스포 행사장내 무대)
2009. 06. 23	중구청 제7회 주민자치센터 발표회 축하공연(중구청)	2010. 10. 19	외솔기념관 한글축제(외솔 기념관)
2009. 06. 25	김영미무용단 전통춤공연 참가	2010. 10. 23	10회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성남동 태화강 둔치)
2009. 06. 26	중구문화원 놀이터 문화제(우정동 선경아파트 놀이터)	2010. 10. 30 ~ 31	부산 경미장 마철 문화축제(부산경미장)
2009. 07. 28	강북교육청 청소년 들살이캠프(울주군 참살이 마을)	2010. 11. 06	다문화가정 합동 결혼식(남구문화원)
2009. 07. 31	조선해양축제 기념공연 (동구 일산해수욕장)	2010. 11. 07	정진욱 무용공연 리허설(마산 경남대학교 무용실)
2009. 08. 14	문화원연합회 울산지회 금오문화한마당 공연	2010. 11. 10	2010년 정진욱의 전통춤 한국의 춤과 소리 (양산 문화예술회관 대강당)
2009. 08. 26	2009 할석맞이 어울마당(울산종합운동장 청소년광장)	2010. 11. 12	문화 나눔 봉사단(성애원)
2009. 11. 08	태화강 문화거리 축제(차 없는 거리 일대)	2010. 11. 16	문화 나눔 봉사단(태연학교)
2009. 12. 04	고3 문화여행(울산 경원정보통신고등학교)	2010. 11. 19	문화 나눔 봉사단(해인학교)
2010. 02. 28	2010년 정월대보름 한마음 큰잔치(태화강 둔치)	2010. 12. 04	병영서낭치기 발표회 초청공연(태화동 중구문화원(주)성전사)
2010. 04. 02	연양 3.1만세 운동(연양 장터)	2010. 12. 10	북구 상주단체 공연-신나는 판 놀음(북구문화예술회관)
2010. 05. 04	어린이날 행사 - 새울산 어린이집(울산 새울산 어린이집)	2010. 12. 19	진주 삼천포 농악 박연선생 칠순 공연(진주 경남 문화예술회관)
2010. 05. 08	어버이날 행사(부산 수안초등학교 운동장)	2010. 12. 20	사업개발비 공연 및 사회적기업 인증 축하공연 (소공연정(구.시민극장))
2010. 05. 15	찾아가는 문화활동(경영정보고)		
2010. 05. 19	한국석유화학 기공식(한국석유화학)		
2010. 06. 04	포항 환경의날 행사(포항시청 문화당)		
2010. 06. 15	공연상주단체공연 - "두드리고 풀어낸 불매" (북구문화예술회관)		
2010. 06. 16	중구문화원 2010 단오맞이 한마당 큰잔치(중구 학성공원 일대)		
2010. 06. 16	남구문화원 2010 단오맞이 한마당 큰잔치(남구문화원)		
2010. 06. 18 ~ 20	제6회 쇄부리 축제(북구청)		
2010. 06. 18	덕신 금오한마당(덕신공원)		
2010. 06. 24	작은 음악회(연양 영화초교)		
2010. 06. 25	6.25추모행사(포항)		
2010. 06. 29	산전 샘물 축제(울산 병영 산전)		
2010. 06. 30	2010 울산학춤보존회 기획공연(울주문화예술회관)		
2010. 07. 01	고래축제 퍼레이드		
2010. 07. 09	작은 음악회(진하해수욕장)		
2010. 07. 15	가 · 무 · 악으로 풀어내는 계변천신 설화(울산문화예술회관)		
2010. 07. 16	멀치후리 그물 당기기 재연(진하 해수욕장)		
2010. 07. 27	중구청 직원 화합을 위한 작은 음악회(중구청 마당)		
2010. 07. 28 ~ 29	태화루 예술단과 함께하는 남부서 직원교육(남부경찰서)		
2010. 08. 03	들살이 캠프(척과 하늘빛 수련회)		
2010. 08. 26	제2회 울주 찾아가는 작은 음악회(청량초등학교)		
2010.08.28~9.18 (매주토요일)	중구 원도심 거리 아트페스티벌(울산 중앙동 일대)		
2010. 08. 29	김옥련 발레단 상주단체 공연(해운대)		
2010. 09. 01	공연상주단체공연-계변성 사람들(북구문화예술회관)		
2010. 09. 08	김소영 발표회 "심청 소릿길을 거닐다" (문화예술회관)		
2010. 09. 09	백남준 특별전(포항 시립미술관)		



봄

기다리지 않아도 오고
 기다림마저 잃었을 때에도 너는 온다.
 어디 뿔발 구석이거나
 썩은 물 웅덩이 같은 테를 기웃거리다가
 한눈 좀 팔고, 싸움도 한판 하고,
 지쳐 나자빠져 있다가
 다급한 사연 들고 달려간 바람이
 흔들어 깨우면
 눈 부비며 너는 더디게 온다.
 더디게 더디게 마침내 올 것이 온다.
 너를 보면 눈부서
 일어나 맞이할 수가 없다.
 입을 열어 외치지만 소리는 굳어
 나는 아무것도 미리 알릴 수가 없다.
 가까스로 두 팔 벌려 껴안아 보는
 너, 편 데서 이기고 돌아온 사람아.

이성부







동작금석문집

동작문화원 발행

동작구에 소재한 금석문의 탁본과 번역을 담은 책이 발행되었다. 문화유산 중 9점의 금석문과 원문에 대한 번역 해설을 실어 당대의 역사적 사건과 인물연구의 기본자료로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발간사를 통해 이윤선 동작문화원장은 역사적 사료를 1차적 자료로써 문화축제의 콘텐츠로써 가치를 재창조하고 역사적 교훈과 본연적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단종 하위지에게 듣다

구미문화원 기획 작품(글, 그림 강촌행)

구미시에서 출생했거나 공부한 인물들에 관하여 기획된 구미의 역사와 인물 그 첫 번째 이야기다. 단종을 중심으로 하여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하위지를 통해 역사를 조명하였다. 조선왕조실록을 통해 자료를 살피며 기록에 충실히 하였다는 임이록 선생은 현 한국만화가협회 부회장이다. 아이들에게도 좋은 학습자료이지만 어른들이 읽기에도 유익한 책이다.





용인사람 용인이야기

용인문화원 발행

용인의 근현대사 증언 구술생애 첫 번째 자료집이 나왔다. 용인지역의 현대사를 기록함으로써 근현대 용인의 역사를 현장중심으로 복원하고 용인의 자료가 되기 위해 제작되었다고 이종민 용인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구술로 이루어져 있어 부담스럽지 않고, 두런두런 읽는 재미가 있다.



용인의 분묘문화 제2집

용인문화원 발행

오늘날 역사를 연구하는 학자들에게 분묘는 대단히 중요한 역사적 단서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사회상과 생활 부문에 남아있는 기록이 미미한 상태에서 매장 문화제에 대한 연구는 대단히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고 이종민 용인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밝히고 있다. 이에 용인지역의 향토사 연구자료로 부족함이 없을 이번 책자가 발간된 것. 이 책은 지난 용인 분묘문화 제 1집 이후 10년만의 결실이다.



증평군 지명유래

증평문화원 발행

지명을 수집하고 일일이 해석하는 일은 보통 일이 아니다. 증평문화원에서는 증평군지명을 일일이 조사하여 그 유래를 밝혀 하나로 묶어 증평군지명유래를 펴내었다. 최건성 증평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이름과 그 얹힌 전설로부터 지역의 역사와 문화가 만들어지고 그런 가운데 자연스레 고향에 대한 정체성이 확립되고 향토애도 형성되는 것이라며 책의 발간을 축하했다. 정성과 시간으로 만들어져 증평군의 사람들에게 스스로의 고향에 애정을 덧입히는 데 일조할 책일 것이다.



원주 문화와 아사

원주문화원 발행

표지에 무섭지만 익살스러운 천하대장군과 지하여장군이 웃고 있다. 원주문화의 아사를 묶은 책의 얼굴이다. 장순일 원주문화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세계화를 통해 국가간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과 고유성에 대한 중요성이 언급되면서 우리나라 각 지역이 가지고 있는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인식해야 한다고 말하며 책의 발간을 축하했다. 1장은 치악산에 얹힌 문화유적, 2장은 남한강과 섬강에 깃든 문화유적, 3장은 원주의 향토인물로 꾸며져 있다.



천안의 구비설화(입장면 편)

성환문화원 발행

성환문화원에서 천안의 구비설화를 펴내었다. 어르신들의 생생한 모습과 말투 그대로 기록되어진 내용이 눈길을 끈다. 아랫목에서 이불 덮고 누워 옛날 이야기 듣는 풍경이 그려지기까지. 점차로 사라져가는 구비설화에 관해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시작되었다고 발간사에 밝힌 송용삼 성환문화원장은 우리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을 확보하고 후손들에게 우리 고장의 토속사를 제대로 알게 해주는 좋은 자료가 될 것이라 말하였다. 차례 없이 손가는 대로 읽어도 술술한 재미를 느낄 수 있는 책이다.



조선왕조실록 속의 논산

논산문화원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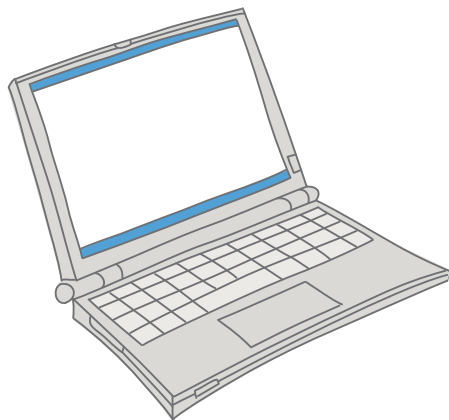
조선시대 왕이 행한 모든 국사에 관한 사항을 연월일로 기록해둔 기록물인 조선왕조실록의 자료 속에서 논산과 관련된 내용을 수집 정리한 책이 발간되었다. 논산의 크고 작은 일들을 꺼내어 모아둠으로써 논산을 좀더 깊이 있게 이해하며 논산의 문화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류제협 논산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밝혔다.



양양의 한시

양양문화원 발행

양양군지를 발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을 소재로 한 한시가 많이 발췌되었으나 다 수록하지 못하였고 그 아쉬움이 한 데 모여 양양의 한시로 탄생하게 되었다. 시를 잘 읽지 않는 세대라지만 친절한 해석을 들여다보면 시간 가는 줄 모르게 읽게 된다. 모두에게 널리 읽혀지길 바란다는 양동창 원장의 말처럼, 이 책으로 인하여 넓고 깊게 읽는 독서의 시간이 될 것이다.





문화원 북북



새롭게 조명하는 김제의 인물 33인

김제시 · 김제문화원 발행

전북 김제에서 김제의 인물 33인이 발행되었다. 고대에서 근현대 외세의 침략에 저항하여 민족의식이 싹튼 구한말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 이르는 역사적 인물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연구를 하였고, 시대를 앞서 살았던 작고한 인물을 대상으로 삼았다고 한다. 이들의 이야기가 지역의 시민들과 청소년들에게 면면히 온기가 지속되길 바라는 마음이 간절하다고 정주현 김제문화원장은 발간사에서 밝혔다.



안양문화원 40년사

안양문화원 발행

문화원의 역사가 길다. 벌써 40년을 맞은 문화원의 형님 댁에 속하는 안양문화원이 40년사를 펴내었다. 사진으로 보는 안양의 40년사, 문화재와 전통행사, 교육사업과 연구활동, 문화논단 등 알찬 읽을 거리가 풍부하다. 사사를 준비하는 문화원이나 안양문화원에 대해 좀더 알고 싶은 사람들에게라면 두고두고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국역금오승람

경주문화원

경주시 경주문화원 발행

금오승람은 경주지역에서 발간된 4대 지리지 중 하나이다. 경주의 역사 이해에 큰 도움을 줄 책이다. 경주문화원에서는 앞으로도 우리의 소중한 전통문화유산들을 후세에 전하는 사업에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히며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손원조 경주문화원장은 발간사를 통해 이야기했다.

문화원 돋보기

성남문화원

2011, 향토유적지 순례

- 문화의 전통과 뿌리를 찾는, 1년간의 여행 시작 -

성남문화원(원장 한춘섭)은 오랜 역사를 통해 축적된 유형·무형의 문화유산과 산업화 시대를 거치는 과정에서 등한시되거나 인간성 소외 등의 문제, 그리고 다민족 다문화 시대에 사회의 통합과 소통



을 위해, '2011, 향토유적지 순례' 사업을 작년에 이어 연속 진행한 다.

지난 3월 30일, 40명의 성남시민들은 화창한 봄기운을 느끼며 '제 1차, 향토유적지 순례'로 경기도 이천과 광주지역의 문화유적지를 다녀왔다. 이 날, 윤종준 향토문화연구소 연구위원의 자세한 문화해설과 함께, 이천 시립 박물관과 월전 미술관, 백사면 산수유마을 등 타 지역의 문화유산을 보고, 듣고, 느낄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앞으로 성남문화원은 2011년, 총 8회의 '향토유적지 순례'를 진행 할 계획으로, '2차, 향토유적지 순례'는 경남 함천의 해인사와 함양, 개평리 한옥마을로 4월 21일 ~ 22일(1박 2일), 답사할 예정이다.

세계 기록문화유산으로 지정된 팔만대장경 제작 1천년을 기념하여, 조선시대 좌안동 우함양으로 알려진 선비의 고장 함양 지역의 문화 유적을 통해, 오랜 문화적 전통과 뿌리를 확인하고, 성남시민에서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출 수 있을 것이다.

포천문화원

포천문화원 "2011 어르신문화프로그램" 개강식 개최

- 실버악단양성반 및 문화나눔봉사단 개강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7일 수강생 및 문화원 임·직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인 "실버 악단 양성반" 및 "문화나눔봉사단" 개강식을 가졌다.

이날 개강식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어르신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해 주신 어르신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음악을 통해 생활의 활력과 즐거움을 찾고 노후를 보람있고 아름답게 장식함은 물론 뜻깊은 문화나눔봉사활동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포천문화원 어르신문화학교 및 문화나눔봉사단은 지난 한 해 동안 22회에 걸쳐 관내 불우시설과 문화소외지역 등에서 찾아가는 문화나눔 봉사공연 실시했으며, 전국 문화원의 날 행사 초청공연 등을

통해 우리 지역 어르신들이 음악을 통해 자긍심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만들며 새로운 예술 장르를 개척, 발전시키고 있다.

본 사업은 고령화에 대비 지방문화원을 중심으로 건강하고 생산적인 실버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한국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포천문화원에서 주관하며 문화관광부의 후원으로 실시되며, 하모니카·기타·대금·플루트·색소폰·가야금·아코디언 등의 휴대 가능한 악기를 취미생활로 배우거나 음악을 좋아하는 어르신은 누구나 수강 할 수 있으며, 문의는 포천문화원 ☎ 532-5015, 5055, FAX 536-1020, 홈페이지: <http://www.pcmh.or.kr>, e-mail: kgpc1986@yahoo.co.kr)으로 하면 된다.

포천문화원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시상식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3월 25일 포천문화원 2층 강의실에서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 1/4분기' 당선작 시상식을 입상자와 문화원 수강생 외 30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평소 고마움을 느꼈던 사제 간, 가족 간, 혹은 친구에게 편지를 보냈으로써 사랑으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아름다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에 지역 사회를 넘어 전국 각 지역 여러분들의 많은 참여와 성원을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번 공모전에서 영예의 장원은 충북 청주시 허유리의 '나를 내가 아닌 누군가에게서 찾다. 그산비람', 차상에는 서울시 김성준님의 '옥탑방의 어머니'가 차지했으며, 차하는 전남 광양시 정아람님과 경남 남해군 김휘님, 특선은 의정부시 박금자님, 포항시 최종인님, 포천시 김경화님,

입선에는 충북 청원군 최광성님, 포천시 김영순님, 서울시 김유진님 등 총 10편이 우수작으로 선정되었으며, 부득이 거리관계상 근거리 에 거주하는 수상자를 모시고 시상식을 진행했다. 이날 시상식에서 수상자에게는 상장과 함께 부상으로 기념품 및 농업중앙회 포천시 지부에서 협찬한 농산물상품권이 증정되었다. 포천문화원은 아름다

운 사랑의 편지 공모전을 매분기별로 연중공모하고 있으며, 장원작은 "포천문화사랑" 책자에도 게재할 예정이다.

포천문화원

2011 향토사연구위원 간담회 개최

- 사라진 포천의 옛 모습을 찾아서...『포천의 옛사진집』 발간 협의 -



포천문화원(원장 이만구)은 3월 28일 향토사연구위원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1년도 향토사연구위원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술연구간담회 개최, 향토사료총람(승정원일기편) 발간, 문화유적답사 시티투어 및 청소년 문화유적답사 실시, 향토사 바르게 알기경시대회 개최, 「1사1문화재 결연 운동」, 활성화 방안, 그리고 국비지원을 받아 실시하는 "향토사대중화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아 총력을 경주할 것을 다짐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의 옛 모습, 포천시민의 옛 생활 모습을 담은 사진을 모아 사진집으로 발간하는 『포천의 옛 사진집(가칭)』 발간 사업과 우리 지역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찾는 『포천향토사료총람 승정원일기편(가칭)』 발간사업에 대해 중점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 자리에서 이만구 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우리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향토사 연구와 전통문화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으며

이에 대한 향토사연구위원님들의 많은 협조와 분발을 당부한다" 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간담회에서는 포천문화원 향토사연구소 연구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 위촉장을 전달했다.

◎ 소 장 : 이석구

◎ 부 소 장 : 이구상

◎ 자문위원 : 박경자, 박진태

◎ 연구위원 : 홍광표, 이용극, 서명원, 홍창기, 김수영, 이형순, 이봉우, 임하영, 최창근, 김성겸, 이종훈, 이영주, 박낙영

동해문화원

동해문화원장 이, 취임식



동해문화원(원장 김형순)은 오는 4월7일 오후2시 동해문화예술회관 소 공연장에서 김학기 동해시장을 비롯한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 회장과 김이기 사무총장, 각 지역의 문화원장, 관내 기관장, 회원, 등3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동해문화원장 이, 취임식을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7일 밝혔다.

이날 이, 취임식은 지난 2003년부터 2011년4월까지 8년간 제6,7대 원장으로 재임하면서 2006 한국민속예술축제 최우수상 대통령상 수상, 2010대한민국문화원상 수상, 한국실버문화축제 종합대상 수상 등 다양한 수상과 각종공모사업을 통해 동해문화원을 널리 알리는데 크게 기여한 것으로 나타난 김형순 원장의 명예로운 이임식과... 지난3월 동해문화원 선거관리위원회의 후보등록결과 1인 후보 등록으로 정기총회에서 승인하고 제8대 동해문화원장으로 확정된 홍경표 제8대 신임원장의 취임식이 있었다. 이날 제8대 원장으로 취임한 신임 홍경표 원장은 동해시 송정동 출생으로 전, 강원도 정책과장, 동해시부시장을 역임하였으며 가족은 부인 김정자 씨와 2남1녀에 취미는 서예이다.

한편 이날 이,취임식은 1부, 이, 취임식과 2부 다과회로 진행되며 축하로는 동해문화원 노래교실 중창단의 "사랑하는 마음"을 합창

하고 특별히 한국문화원연합회 최중수회장이 직접 방문해 격려사를 통해 이+취임을 축하했다.

신임 8대원장: 홍경표

의성문화원



의성군에서는 지난 3월 27일 산수유축제 개막에 이어 3월 31일 국제 연날리기대회 기풍제와 4월 2일~3일에 걸쳐 국제연날리기 대회가 성대하게 치러졌다.

국제 연날리기 대회에는 미국을 비롯한 세계22개국 200여명의 선수들이 참여하여 의성군 안계면 위천에서 4일간 치러졌다.

의성문화원에서는 100여명의 회원들과 기풍제와 달집태우기를 주관하여 1000여명과 외국인이 200여명이 참여하여 더욱 빛나는 행사를 치렀다.

2011년이 첫 대회의 만큼 의성 문화원에서는 3일간 우리문화를 알리는데 열심히 노력 하였다.



4월 서울시 문화원 행사 캘린더

문화원명	일 시	장 소	행 사 명	행 사 내 용	대 상	연락처	
성동	4월 6일 오후 2시~5시	응봉산 일대	개나리꽃 축제공연	어린이 그림그리기, 글짓기	성동구민	2286-6234	
서대문	4월 13일 오후 2시	서대문문화예술회관	명사초청특강	임권택 감독 영화이야기	누구나	3217-1592	
송파	4월 중	관내 문화유적지 답사	해피 송파투어	초·중·고생 송파구 답사	학생	414-0354	
마포	4월~7월	각 동 지정 장소	제10회 구민노래자랑대회	동별노래자랑 예선대회	구민	312-1100	
	4월~6월	마포관내유적지	초등학생 내고장 탐방	마포구 문화유적 공공시설견학	초등생		
중랑	4월 5일 오전 9시~오후 5시	봉화산정상	봉화산 도당굿 개최	서울시무형문화재 34호도당굿	구민, 등산객	492-0066~7	
중구	4월 26일 오전 9시 50분~오후 12시	청계천모전교	모형 거북선 경주대회	이충무공 탄신466년 기념행사	누구나	775-3001	
	4월 21~26일	중구문화원	모형거북선만들기대회	모형거북선 전시회	누구나		
노원	4월 1일 오전 8시 30분	충남천안	봄 화원(80명)문화답사	천안박물관 아우내, 유관순기념관	회원	938-1244	
	4월~6월	각심제, 태릉, 신도비	관내 어린이 문화제답사	관내문화유적7개소	초등생		
도봉	4월 2일	연산군 묘지	연산군청명제향	연산군 청명제 봉행	누구나	905-4026	
	4월 12일	도봉서원	도봉서원 춘향제	유일한 서울서원전통제례	누구나		
	4월 13일	전북 김제	역사문화탐방	김제문화원 안내답사	회원		
강서	화·토, 2시·4시	강서문화원	화:어린이영화 상영, 놀토, 가족영화상영			구민	2607-4233
강남	4월~6월	강남문화원	한국화 맞춤형강좌	매주 목요일 오전 10시~오후 12시	수강료납부자	3454-1517	
양천	4월 5일	경남 하동	제1차 문화답사	논개사당, 쌍계사, 화개장터	회비납부자	2651-5300	
	4월 8~10일	양천문화회관 극장	봄맞이 특선영화	관람료 2천원	구민		
용산	4월 5~7일	용산문화원 3층	우수가족 뮤지컬	요리쿡, 과학cook 공연, 관람료 3천원	우수 가족	703-0052	
성북	4월~10월	성북문화원	어르신연극놀이교실	실버교육차원 연극교실	성북구 65세이상	765-1611	

(위의 자료는 서울시지회 '서울문화' 94호에서 인용)

문화향수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시범사업 [5월 소식]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농산어촌, 임대아파트 단지 등 문화소외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자생적인 문화예술 활동 및 문화공동체 조성을 위한 커뮤니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다.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 사업은 3월 31일 서류 공모 마감, 1·2차 서류심사, 기획워크숍을 통해 12개 시군구 총 12개 단체가 최종 선정되었다. 올해 사업은 지역의 다양한 문화자원을 바탕으로 한 계속사업 13개 지역과 신규사업 12개 지역 총 25개 지역에서 생활문화공동체를 만들어갈 예정이다.

특히 올해 신규사업 중 예비사업으로 선정된 3곳은 1차년도에는 주민의 에너지를 결집해내는 단일 주제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되고, 사업종료 후 평가결과에 따라 2, 3차년도에 계속지원 할 예정이다. 따라서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은 지역유형에 따른 다양한 사업모형을 발굴하여 지역주민들에게 문화향수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한다.

▶ 2011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 운영단체

구분	지역	단체명	비고
계속사업	대구 남구	대구현대음악오케스트라	3년차
	대전 중구	극단 아깁없이주는나무	
	충남 천안시	천안 KYC	
	경남 통영시	극단 벽수굴	
	광주 서구	시민문화회의	
	제주 서귀포시	문화도시공동체 쿠키	
	충남 공주시	충남교육연구소	2년차
	부산 북구	문화도시네트워크	
	전남 영광군	우도농악보존회	
	경남 진주시	진주YMCA	
	인천 부평구	자바르떼 인천지부	
	부산 기장면	예술문화연구소 h	
신규사업	경기 화성시	민들레놀이연구소	1년차
	대구 달성군	(사)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대구지회	
	인천 연수구	(사)유네스코인천광역시협회	
	울산 울주군	문화예술창작집단 울림	
	경기 부천시	부천문화원	
	강원 원주시	산화마을예술단 모두굴	
	충북 제천시	(사)예술과 마을네트워크	
	전북 완주군	지역문화자원연구회	
	전남 보성군	보성문화원	
	경북 칠곡군	종물굿패 매구	
	광주 서구	(사)빛고을문화예술봉사단	
	경기 고양시	(재)문화나눔재단	
	경북 경주시	(사)한국전통연희단체총연합회 경주지부	

▶ 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 한국문화원연합회 후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사업담당 | 한국문화원연합회 이서우, 02-704-2311

우수문화원 직원 선진문화시설 연수

해외 지역문화 기관(단체)등의 운영사례 벤치마킹으로 지역문화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 국제화 시대 해외 문화 교류 추진으로 지방문화원 문화활동 영역을 확대 추진하며 한국과 호주와의 수교 50주년 기념에 따른 민간문화교류 활성화를 위한 우수문화원 직원 선진문화시설 연수가 4월16일(토)에서 4. 21일(목)까지 4박 6일 동안 진행되었다.

방문국가는 호주로 North Sydney, Mosaic, Power House Museum 등을 방문하였다. 또한 해외 문화프로그램 체험 및 교류, 방문국 문화기관(단체) 간담회 개최 등 다채로운 일정으로 진행되었다. 시·도지회장 15명, 2010 지역문화경연과정 우수팀 및 우수자 12명이 포함되었다.

우수 문화원 임직원의 선진문화시설 연수 기회제공으로 사기진작 뿐 아니라 방문국 문화기관 및 문화프로그램 교류 확대, 벤치마킹 기회 제공을 통한 지방문화원의 역량을 강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아우내문화원 변경 명칭

2011년 3월 23일 아우내문화원이 아래와 같이 명칭을 변경하였다.

변경 전 명칭 | 아우내문화원

변경 명 칭 | 천안시 동남구문화원

변 경 일 자 | 2011년 3월 23일

2011 지방문화원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 발대식

오는 5월 4일(수)에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나눔봉사단'의 발대식이 열린다. 본행사는 국립고궁박물관 사무동 1층 대강당(종로구 세종로)에서 열리며 12시부터는 남인사마당(종로구 인사동)에서 공연나눔봉사, 청운실버센터(종로구 청운동) 음식나눔봉사가 열린다. 43개문화원 어르신문화나눔봉사단장 1명 및 문화원 실무자 1명을 포함, 평창문화원 어르신봉사단 25명, 공주문화원 어르신봉사단 25명 등 130여명의 어르신들이 모인다. 개회식, 봉사단 위촉식, 존경의 카네이션 달아드리기 등이 진행된다.

평창문화원의 평창 산촌음식인 메밀국수를 고궁박물관 인근 청운실버센터(종로구 청운동) 어르신들에게 나눠드릴 예정이며, 인사동 남인사마당에서는 공주문화원의 복합장르 공연인 어르신 봉사단 '논두렁 밭두렁'의 공연이 진행된다.

객원기자단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문화 객원기자단의 이름을 공모합니다.

마감 | 2011. 5. 15 (일)

전자우편접수 | lune20@kccf.or.kr

※ 선정되신 분에게는 소정의 상품이 있습니다

신임 원장



**울산동구문화원
한태곤**

임기
2011. 3. 30 ~ 2014. 1. 26
울산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과정 수료
동울산청년회의소 회장역임
일송라이온스 회장 역임
동구생활체육회 회장 역임
(현) 울산대학교 정책대학원
총 동문회 회장
(현) 동부경찰서 경찰발전위원장



**경기 안양문화원
원종면**

임기
2011. 3. 21 ~ 2015. 3. 20
인하대 교육대학원 사회교육과
졸업
안양여자중 · 고등학교 교장
(교직경력 37년)
새안양회 회장
안양공고총동문 회장
(현) 안양시민대상 수상자회 회장
(현)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상임위원



**경기 군포문화원
박상호**

임기
2011. 3. 30 ~ 2014. 1. 9
연세대, 충남대학원(공학박사)
수원과학대 환경공학과 교수



**경북 구미문화원
박은호**

임기
2011. 4. 1 ~ 2015. 3. 31
선산군 문화공보실장, 산업과장역임
구미시 선산읍장역임
구미시설관리공단 상임이사역임
구미문화원 부원장(8년)
구미시 행정동우회장

퇴임 원장



**울산 동구문화원
김잠복**

홍진그룹 회장
별세



**경기 안양문화원
장석재**

경기도민회 자문위원
안양시 문화예술재단 이사



**경기 군포문화원
송윤석**

고려대 사회교육원 수료
군포 YMCA 이사장



**경북 구미문화원
김교승**

바르게살기운동구미시협의회장역임
국제로타리3630지구경북총재역임
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조정위원 및 회장

문화원 새가족

서울 강북문화원 사무국장 김삼봉

임용 | 2011. 05. 01
서울시립대 대학원 졸업
서울시 부이사관(3급) 퇴직 (2010.12.31)
서울시립대 시설관리본부장 퇴직 (2010.03.31)

서울 금정문화원 사무국장 김형수

임용 | 2011. 4. 15
국일설비 공업사 대표
김세연국회의원 및 원정희 구청장 선거사무소 사무장 역임

서울 서초문화원 사무국장 이상걸

임용 | 2011. 04. 1
경북대학교 농과대학 원예학과 졸업
제일생명 영업국 조직육성과장 및 소장 역임
사) 한국장애인정보협회 / 장애인 사랑 PC-누리
운동본부 자문위원 現

대구 남구문화원 사무국장 전재현

임용 | 2011. 04. 11
계명대학교 작곡과 졸업
미국 미조리 주립대학교, 대학원 졸업
대구 작곡가 협회 회장 역임
대한민국 창작 합창 축제 조직위원회 실행 위원장
영남 작곡가 협회 부회장

함께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같이」의 가치는 더 깊어집니다
함께한 추억이 많아질수록 「같이」의 가치는 더 높아집니다
누군가와 「같이」 꿈꾸는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것을 믿습니다
농협 50년, 당신과 함께 만들어 온 「같이」의 역사입니다



세상을 따뜻하게 만드는 두글자
「같이」의 힘을 믿습니다

